

同族마을의 設村시기에서 나타난 立地 특성에 관한 연구

朴明德

(동양공전 건축과 부교수)

朴彥坤

(홍익대학교 건축과 교수)

I. 서론

韓國의 마을은 古代社會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古代는 氏族中心, 村落中心의 사회로서 대개 한 씨족이 마을을 형성하여 수개이상의 씨족과 마을이 결합 또는 연맹하여 村落社會를 형성하였으며 다시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보다큰 同盟體(種族社會)를 이루었다.

마을은 社會的 動物로서의 인간이 集團生活를 영위하려는 인간본래의 속성에 맞추어 창조된 것이고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가옥을 기본단위로 하여 전개되고있다.¹⁾

마을이란 인간의 共同生活를 지향하는 社會的

本성에 기인한 것이다. 개인 生産力의 발전수준이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자연적으로 견고한 共同組織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형성된 것이 마을이었다.²⁾

이후 高麗와 朝鮮時代를 거치면서 한국의 마을은 제나름의 역사와 그 역사를 특징지운 諸條件을 가지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家父長制의 인 본질에 의한 共同體的 屬性으로 집약되고 그 위에 고대적, 봉건적 또는 근대적인 諸關係가 특징지워지면서 한국의 특수한 역사가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한국의 마을은 血緣性을 토대로 하는 共同體的 諸關係 위에서 전개된 生産樣式의 變遷過程과 性理學의 보급과 발전, 쇠퇴라는 脈과 같이 변화하

1) 韓國의 共同體 내지 村落共同體를 설명하는 用語는 다음과 같다.

• 共同體的 諸關係 • 共同體의 屬性 • 地域共同體
• 農業共同體 • 農村共同體(village community)
• 마을(communitiy) • 農村共同體(village community, Agrargemeinde) • 村落共同體(village community)
• 村落共同體(Dorfemeinde) • 原始共同體 • 近代農村共同體 • 아시아의 共同體 • 古典古代的 共同體 • 켈만의 共同體 • 宗族共同體 • 家父長的 共同體 • 家父長的 世

帶共同體 • 血族共同體 • 生産共同體 • 祭祀共同體

• 隣保共同體 • 行政共同體 • 都邑共同體 • 防禦共同體

• 氏族共同體 • 血緣的 共同社會=氏族共同體 • 地域的 共同社會=村落共同體 • 心緣的 共同社會=市民共同體

• 村落的 地域的 共同體 • 地緣的 共同社會=村落共同體 • 征服共同體 • 被征服共同體 • 家族共同體 • 親共同體

• 自治共同體 • 地緣的 共同體 • 部落共同體 • 自然村落 • 共同隣保團體.

2) 文炳鍊, 韓國의 村落, 進明文化社, 1973.

고있다. 한국의 性理學은 原始儒學을 바탕으로 그 전까지의 先着文化에 동화하거나 융화하면서 민족 문화로 형성되어 조선시대에는 新興士大夫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통치사상으로 자리잡게된다.

초기에는 家父長的 倫理規範에 치중하면서 漢陽을 중심으로 勳舊派들에 의해 주도되다가 15세기 후반 嶺南士林派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性理學은 16세기 이후 士禍를 겪은 士林派들의 鄉村社會 隱居와 그들이 宗法을 실천함에 따라 종족조직이 강화되지만 18세기 이후는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實學思想의 보급으로 점차 활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마을의 造營方法에 있어서도 15세기에는 정신적인 면에 우위를 두고 마을을 이루던 조영방법이 16세기이후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이라는 큰 변화와 당시의 宗法思想이 마을을 조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 18세기 이후에는 농업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廣作經營과 사회적인 변화 또는 경제적인 관념에 따라 마을의 조영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研究의 目的은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마을의 立地特性을 밝히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당시 사대부계층의 環境知覺과 立地選好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범위는 嶺南地方의 班村을 대상으로 우선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마을을 대상 入鄕背景과 立地에 관한 문제만 언급하는 것에 한정을 한다.

하지만 15세기에 設村된 眞寶李氏나 義城金氏들의 聚落은 현재 소멸된 관계로 그들의 分派地에서 나타난 景觀構造와 여기에 내재된 精神을 밝히는 것에 한정을 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각 마을에 대한 세부적인 圖面이나 建築的인 특징, 各論的인 연구는 차후 학회지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II. 同族마을의 形成背景

한국에 있어서 동족마을의 발생 및 발달은 한국특유의 社會組織, 家族制度, 經濟構造 등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조선왕조의 文物制度가 정비되고 高麗朝의인 불교사회가 유교사회로 대체되는 過渡期인 15세기 까지만 해도 당시의 사회는 高麗朝의인 佛敎와 淫祀를 그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유교를 지도이념으로하는 朝鮮王朝가 정책적으로 崇儒抑佛策을 강력히 실시하였고 새로운 지배세력인 신홍사대부가 사회를 영도해 가면서 朱子學의 實踐倫理를 실천수범 하던 시대였다.

즉 그 전까지의 불교적인 의식에서 朱子家禮의인 冠婚喪祭를 실행하고 詩賦中心과 儒佛未分化상태에서 經學을 중시하고 崇儒排佛의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질서와 가정윤리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朱子家禮대로 冠婚喪祭가 향촌사회에까지 일반화되기에는 16세기말 이후라야 가능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면 조선사회는 宗法의 강력한 영향하에 놓이게 된다. 宗法은 원래 周代에 완비된 別子宗法을 일컫는다.³⁾

이것은 제후의 別子が 宗이 되어 卿士大夫로서 一家를 세우고 다시금 그 一家에서 많은 小宗을 이루게 되어 이를 통합키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여기서 別子の 嫡長子는 別子를 계승하여 大宗이 되고 '百世不遷'하며 別子の 嫡次子 이하는 分岐하여 小宗이 되어 '五世而遷'하게 된다.

이러한 宗法은 立嗣(祭祀繼承)와 收族의 필요에서 생긴것이며 血通存續을 위하여 嗣를 잇고 부모의 祭祀를 중히 여기며 廟를 지키고 친족을 거느리는 일관된 정신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초에 적용된 宗法은 당시의 新儒學과 함께 들어온 南宋의 宗法이었으며 이러한 宗法이 조선사회에 통용되었을때 大宗, 小宗의 구분보다는 宗家, 支家 또는 本家, 分家の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변형된 宗法의 수용결과 先祖의 祭祀를 계승하고 分岐過程을 통해 형성된 本-分家, 宗-支家간의 결속을 世代를 통해 유지하므로써 동일선조의 자손들은 宗族組織, 즉 門中 또는 宗中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인 사대부계급들은 최소한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생활은 자족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동족마을의 土地를 매개로한 生産關

3) 文炳鏞, 上揭書.

係는 물질적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단계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血緣性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었다. 즉 동족마을이 血緣과 地緣을 기반으로 형성될 때 血緣이라는 原始的(=生物的) 관계는 社會的 關係를 識別하고 配列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혈연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적 의미를 갖게된다. 그리고 동족마을이 土地를 경제적인 기반으로 할 때 이러한 血緣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는 토지를 매개로한 생산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들은 대지주인 麗末의 權門世族과 15세기의 勳舊派처럼 거대한 農莊과 무수한 奴婢를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족할 수 있는 土地와 奴婢를 소유하면서 공고한 經濟的 基盤과 社會的 地位를 누리고 있었다.

문자상에 나타나는 士林派의 청빈한 생활이란 그러한 士族의 體貌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다. 朱子家禮대로 冠婚喪祭를 실천하고 宗族과 朋友를 접대하는 이른바 奉祭祀 接賓客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일정한 田地와 奴婢는 소유하고 있었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이러한 宗法思想과 경제관념을 기본에 두고 발생한 동족마을은 그 設村 및 入鄉時期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時代	階層	性 向
朝鮮中期 15세기 후반 - 1700년	士大夫層	高級官僚, 性理學이 가치관 형성 출신지역에 居處하면, 官職에서 은퇴후 그 지역의 支配者로 군림
	鄉班層	名門家에서 분기한 階層, 精神構造는 士大夫層과 동일 地域에 안주한 土着地主的인 性向내포
	富農層	몰락한 兩班層과 常民에서 신분이 격상된 계층 士大夫層과 鄉班層에 비해서 經濟力이 떨어짐
1800년	士大夫層	1700년대 士大夫層과 성격비슷
	鄉班層	점차 權力에서 소외되어가며 土着地主的 性向이 강해짐

표1 時代에 따른 身分層의 變化

4)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

Ⅲ. 設村時期에 따른 마을의 立地特性

1. 15세기에 設村된 마을

1) 土溪마을

① 입향경위

土溪마을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退溪 李滉 後孫들인 眞寶李氏들의 동족마을 이다.

眞寶李氏는 원래 眞寶縣 邑內에 居住하다가 麗末에 李碩이 縣吏에서 士族으로 성장하였고 14세기 중엽 그의 아들 李子脩代에 紅巾賊 침입시 裨將으로 從軍 전공을 세워 松安君에 봉하게 됨으로써 士族과 吏族으로 분화하였다. 그의 아우 李子芳은 父祖의 遺業을 계승하여 本貫의 향리로 남게 되었고 그 子孫들은 계속 吏族이 되었다.

李子脩는 士族으로 성장하면서 倭寇를 피하여 本貫地인 眞寶를 나와 安東府 豐山縣의 남쪽에 있는 磨崖로 離居하여 그곳에서 강력한 在地的 基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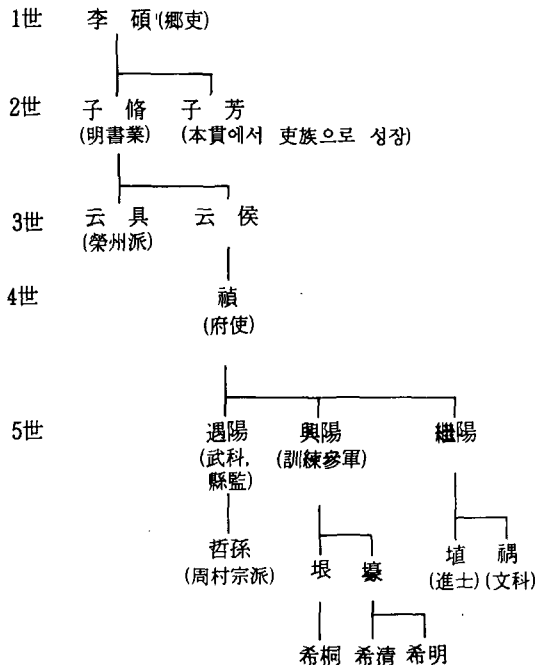


표2 眞寶李氏 世系圖

所, 1984.

5) 崔壹, 朝鮮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居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을 가졌다. 李子脩의 後裔는 安東, 禮安, 榮州 등지로 확산되었는데 그의 長子 云具系는 榮州派가 되고 次子 云候系는 安東, 禮安派가 되었다. 15세기 중엽 4世 禎은 安東府北 周村으로 옮기면서 이곳이 禎의 長子 遇陽 子孫의 世居地가 되었다. 次子 繼陽은 처음 처가가 있는 禮安縣 동쪽에 있는 浮羅村에 거주하다가 15세기 奉化縣의 訓導로 부임차 가던 길에 溫溪를 지났는데 그는 이곳이 農莊개설과 주거지로서 적지임을 알고 溫溪에 卜居하게 되었으며(세종6년, 1456) 그의 次子 禱의 子孫은 북쪽인 太子洞으로 확산되어 갔다.

따라서 眞寶李氏는 鄉里에서 土族으로의 신분상승과 함께 本貫地를 이탈 安東으로 이주하였고 안동에서 최초 거주지는 豊山平野에 가까운 豊山縣 麻厓였다.⁶⁾

이후 이들은 조선후기 당쟁에 의한 남인의 몰락이 이들의 중앙정계진출을 막아 정치적 관직에 대한 권력욕에는 소극적 자세를 가지게 되는데 반하여 학문우선의 선비적 생활태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촌락생활에서 동족상호간의 협동 및 규제, 문중지향의 생활분위기를 갖게 되었다.⁷⁾

② 分派地에서 나타난 景觀構造

埴의 여섯째 아들인 退溪는 16세기 중엽 官職에서 隱退한후 溪流를 찾아 溫惠의 下流인 土溪에 살다가 다시 上流인 윗토계(上溪)로 옮겨 土溪를 退溪로 고치고 여기서 정주하였으며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退溪는 16세기 土溪로 들어와 17세기 이후에는 그 후손들이 溫惠와 土溪를 중심으로 낙동강 본류의 상하로 인구증가에 의한 擴散을 계속하여 19세기 경까지 眞寶李氏의 氏族마을은 溫惠, 太子洞, 上溪, 下溪, 宜仁, 丹砂, 遠村, 浮浦, 溪南 등으로 확산되어갔다.

또한 陶山面 북측 萬里山 溪谷인 太子洞에서 출발하는 土溪水(溫惠川)는 溫惠, 良平, 上溪를 거쳐 下溪와 溪南에서 넓은 들을 이루며 洛東江 원류(落川)에 합쳐진다.

土溪의 良平, 上溪의 경우도 溫惠川의 하류인 土溪川의 양쪽에 형성된 좁은 골짜기에 위치하며 上流로 부터 良平, 上溪, 下溪, 溪南의 4개 마을과 落川邊의 陶山書院으로 구성된다. 특히 土溪는 開墾의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있어 이곳의 촌락입지는 溪流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수있다. 여기에는 당시 士大夫들의 卜居地 選擇觀이 잘 표현되어 있다.

溫惠는 당시 在地土族들이 卜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川流 혹은 溪谷을 따라 兩岸에 田畠이 전개되어 있어 쉽게 물을 댈 수 있고 旱害를 적게 받았던 곳이며 주위에는 開墾可能地가 많아 勞動力만 있으면 田畠을 確保할 수 있는 곳이었다.⁸⁾

옛날 이곳은 풍치가 뛰어난 곳이었다. 산이 그렇게 높거나 우람한 편은 아니지만 우뚝 솟은 산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 있지않고 주위의 산봉우리들이 이 산을 향하고 있고 맑은 강물도 이 산을 감싸고 흐른다. 왼편에는 靑涼山에서 뿜어나온 東翠屏의 봉우리가 솟아있고 陶山뒤로는 退溪가 흐른다.

또 주위의 골짜기가 깊어 조용한 景勝을 즐기면서 子孫을 敎育할 수 있는 등 마을형성의 自然的條件이 구비된 곳이었다. 또한 이곳의 양쪽 산

6) 安東에 관해서는 「人多安東 結多尙州 地廣慶州」라 하여 安東은 인물이 많고 尙州는 세금이 많이 걷히고 慶州는 땅이 넓다는 뜻으로 이 지방을 평가 하고 있다.
7) 徐居正은 李增暉이 조직한 「安東友鄉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安東을 기술하고 있다. 東方仁人君子國, 風俗第一稱安東, 詩書俎豆一鄒魯, 家家勤儉追唐風, 花山湖水天下奇, 磅薄所鐘多英雄, 統三以來多勳臣, 袞袞至今不乏人. 或知止足歸去來, 亦或高尚而隱淪. 生長老死於我鄉, 亦是太平之遺民(「永嘉誌」, 卷7, 寓居李增條) 또 士林派의 한사람인 俞好仁도 安東에 대하여 安東地瘠民貧, 然風俗力於農柔, 節用儉嗇, 以至備荒之務, 無不周密, 他邑無及(「續東文選」, 卷3, 五言古詩條)이라하여 安東의 美風을 찬미하였다.

8) 公(繼陽)初居縣東浮羅村, 爲奉化縣訓導, 一日將往奉化過溫溪, 愛其泉石之勝, 公乃決意移居, 時, 溪上只有一戶, 田疇閒廢, 隨處可耕, 樹木茂密, 洞壑深窈, 溪水清甘, 可引而溉田灌園, 公性恬靜閑遠, 不務進取, 以耕釣爲樂, 教子孫爲業, 有終之志 「退溪先生 續集」, 卷8, 先祖考兵曹參判諱繼陽事蹟條. 李樹健의 「嶺南士林派의 形成」에서 인용.

은 모두 石壁으로 불가에 위치하여 경치가 훌륭하고 골짜기에는 古樹가 울창한 곳으로 이러한 곳으로 그들의 주거지를 확산하여 갔다.

退溪는 50세에 풍기군수직을 버리고 溪流를 찾아 上溪에 寒棲菴을 짓고 자연을 즐기며 생활하였다. 退溪는 그의 晩年인 65세에 이곳에서 산새가 지저귀는 봄과 초목이 피어나는 여름, 서릿발이 차가운 가을 그리고 雪月이 영키는 겨울의 철따라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陶山十二曲에 읊고 있다.⁹⁾ 그에게 있어 自然이란 人格修養의 道場이요 道義를 기뻐하고 心性을 길러서 즐기는 터전이 된다.¹⁰⁾

따라서 退溪 이후 그들의 후손들이 分派하여 입지한 마을의 특성은 山으로 둘러싸인 洛東江 上

9) 退溪의 陶山十二曲은 前六曲과 後六曲으로 나누어진다. 前六曲은 「志」를 後六曲은 「學」을 읊고있는데 前六曲은 自然親和의 歸去來詞에 해당하고 後六曲은 勉學得道の 갈망을 노래하고있다. 陶山十二曲의 前六曲과 後六曲의 그 주제의 체계로서 구성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前六曲」

1. 世事를 잊고 「泉石膏肓」에 문합
2. 「烟霞」 「風月」속의 「太平聖代」→허물없는 삶
3. 「淳風」 「人性」→바른教育
4. 「幽蘭」 「白雲」→「彼美一人」: 自然속의 戀君
5. 「山前有臺」 「臺下流水」: 自然속의 自足
6. 「春風花滿山」 「秋夜月滿臺」- …時佳風」: 自然속의 自足

「後六曲」

1. 「萬卷生涯」→「往來風流」: 讀書, 風流
 2. 비유→「耳目聰明男子」: 警世
 3. 「古人」→「녀던길」: 警世
 4. 「녀던길」: 學問, 自嘆
 5. 「青山」 「流水」→「萬古常青」: 教訓
 6. 「愚夫」, 「聖人」→「늙은 주를 몰래라」: (道の 실천, 勉學的 즐거움) 曹敏煥, 退溪, 栗谷의 詩觀과 詩調, 蔚山工科大学 研究論文集, 제9권 제2호, 1978.
- 10) 退溪는 陶山十二曲을 통해 「君子들이 숭상할바(君子所宜尚)와 「따뜻하고 부드럽고 믿음직스러운 실상(溫柔敦厚之實)을 표현하여 「비루하고 인색한것을 씻고 느낌을 발동하여 원활히 통하게 하는것(蕩滌鄙吝 感發融通)」을 목표로 하였다.

流의 맑은 土溪水나 洛川의 溪流가 흐르는 유역이나 深山溪谷에 자연지세와 지형의 특질이 뛰어난 곳에 溪居인 住居地를 택하였다

2) 내앞마을

① 입향경위

내앞마을은 경북 안동군에 위치한 義城金氏들의 동족마을로 義城金氏는 義城君 金錫이 始祖이며 高麗初의 豪族 金洪術의 후예로서 義城縣 제일의 土姓이다. 고려 후기 이래 上京從仕하면서 거주지를 확산하여 고려 말에는 벌써 畿湖地方까지 분포되었다.

義城金氏 金璉 家門은 14세기 초 瑞芝, 台權兩代에 上京從仕하였으나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진 것을 보고 14세기 말 居斗代에 安東 豐山縣에 살게됨으로서 安東人이 되었다. 義城의 土姓勢力으로 성장한 金居斗는 고려 후기 大閔族 金方慶의 4代孫璿인 동시에 역시 안동출신의 權門 權漢功의 外孫璿로서 麗末에 工曹判書를 역임하였다. 漢啓, 漢哲이 문과에 급제하여 상경하였다가 세조등극에 반대파로 몰림에 따라 또 다시 안동에 낙향하게 되어 漢啓가 安東, 둘째 漢哲은 軍威, 셋째 漢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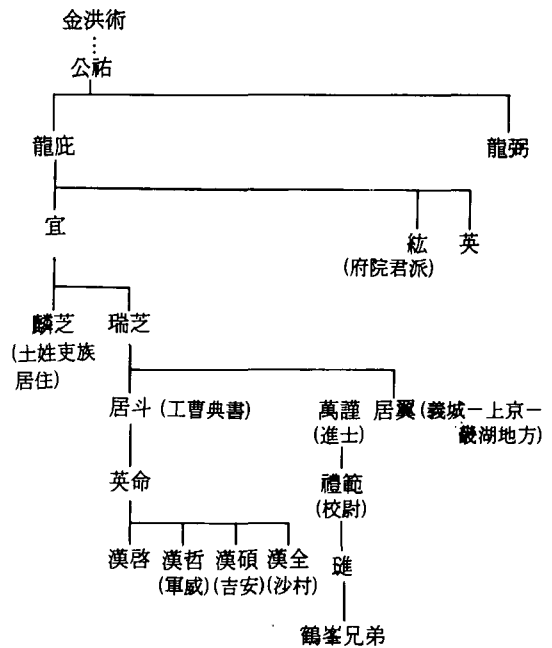


표3 義城金氏 世系圖

이 吉安, 네째 漢全이 沙村으로 분파되고부터 嶺南의 대표적인 士林派 家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② 分派地에서 나타난 景觀構造

내앞마을은 의성김씨들의 집성마을로 15세기 嶺南 士林派가 麗末의 不事二君派와 세조의 등극을 불의로 간주하고 在野勢力으로 밀려났던 在地土族이 주체가 되어 형성되었듯이 의성김씨 가문의 정치적 성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래되었다. 의성김씨의 17世 萬謹이 進士試에 오르고 臨河縣 일대의 大地主人 吳季隴의 사위가 되어 처가를 따라 15세기 후반에 내앞에 처음으로 터를 잡게 되었다. 臨河로 입향한 金萬謹의 손자인 靑溪 金璉은 成均生員으로서 傳岩에 서당을 짓고 후진 교육에 힘쓰며 朱子家禮대로 모든 의식을 거행하는 등 性理學的 倫理規範을 실천하였다.¹¹⁾

또한 在地地主로서 營農에도 힘써 家産을 크게 증식시켰다. 특히 金璉은 만년에 川前을 떠나 개설한 靑杞農莊은 산이 깊고 사람이 드물며 官府와 떨어져 있으므로 官의 찬탈을 적게 받은 곳으로 溪谷을 따라 펼쳐진 荒地를 개간하여 避世하면서 자손을 가르치고 또 士大夫의 幽閑한 취미도 살릴 수 있는 卜居地로서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었다.¹²⁾

金璉의 자손들은 선조의 경제적 기반 위에 家舍 田民을 분배받으며 활발한 거주지 분파를 보이는데 5兄弟 중 長子인 克一과 守一, 明一 등은 16세기 후반에 내앞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臨河縣 일대로 분가하여 그들의 자손은 臨河縣 半邊川 일대로 확산되어 있다.¹³⁾ 그의 손자 시율은 學行으

로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半邊川의 골짜기에 臥龍草堂을 짓고 학업과 강학에 힘썼다. 그의 子孫들은 長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臥龍草堂이 있는 陶淵의 상류쪽으로 확산되어 17세기 중엽부터 知禮, 菊蘭, 後坪 등으로 확산되어 마을을 형성하였다.

義城金氏는 14세기 초에 安東에 입향하여 일시 上京從仕하다가 다시 落鄉하여 내앞에 卜居하였으며 특히 16세기 安東의 名族으로 등장하고 17세기에는 크게 住居地를 확대하였다. 확산의 방향은 半邊川 兩岸에 확산하는 한편 上流쪽으로 이동하여 知禮까지 居住地域을 형성해가며 이 지역을 川前에서 川曲을 이르는 계곡을 半邊九曲이라 하고 있다.¹⁴⁾

金璉의 자손이 府의 동쪽 일대로 거주지를 넓게 확산해 나간 것은 이 가문이 婚姻과 開墾에 의하여 토지를 半邊川 상류지역에 많이 확보하기도 했지만 이곳은 안동부내에서도 奧地에 속한 곳으로 이들 이전에 土族의 거주가 적었던 곳이었다.

半邊九曲에 입지한 의성김씨 씨족취락들의 地緣的인 고유성과 지형적인 특징으로 九曲과 물에 관련한 이 지역의 별칭으로 川前과 臨河, 思義, 岳沙, 길목, 陶淵, 下菊蘭, 上菊蘭, 知禮, 後平, 川曲의 11개 마을을 일컫고 있는데 내앞마을과 신덕동 추월및 망청동을 한데 묶어 물아래(水下)라 하고 半邊川 지역을 따라 그위의 마을인 陶淵, 龍溪, 回川, 菊蘭, 知禮, 大谷, 後坪, 川曲, 枝洞, 九水를 일컫는데 이들 마을을 九曲上流, 川上九曲이라고 하였다.

川上九曲의 艷稱은 安東 臨河 思義洞 仙倉에서 위로 半邊川을 거슬러 오른다. 陶淵仙倉이라는 경승은 기암괴석과 청류수 속에 하얗게 드러내 보이는 암반과 잘 조화된 주변 山景이 어우러진 한쪽의 그림을 일컫음이다.

半邊九曲의 주요 水系인 半邊川은 일월산을 수원으로 하여 계곡으로 남하하다가 백암산에서 흐

11) 南人 천지의 安東땅에서 西人 관료의 눈에 비친 옛 마을사회의 한 단면을 상징하는 아래와 같은 어구가 世傳되고 있다.

川金錚錚 河柳青青 法李觀望 蘇李爛漫 천진김씨는 턱도없고 하회유씨 서슬이 퍼런데 법리(법흥에 사는 교성이씨)는 정세를 관망하고 소리(소호리에 사는 한산이씨)는 기세가 높다.

12) 金德鉉,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文化景觀, 서울大 地理學科 碩士學位論文, 1983.

13) 그는 일생을 爲子孫事業에 이바지하며 후일 子孫이 번창할것을 豫見하고 5兄弟를 각각 遠居地에 散居토록했다. 5兄弟를 모두 陶山門에 受業시켜 그 淵源을

繼承케하고 3兄弟는 大科에 兄弟는 小科에 급제하여 당시 이집의 宅號를 五子登科宅이라 불렀다.

14) 黃相赫, 「半邊九曲」에 立地한 聚落의 空間構造,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르는 長枝川과 합류하여 西流屈曲하다가 九巖山, 霧抱山 및 周王山을 수원으로 하는 용연천과 청송군 後平洞에서 합류하여 九曲이 이루어 지며 망천동에서 다시 大谷川과 합류하여 낙동강의 상류를 이루며 이로부터 형성되는 溪谷은 제일의 擇居地로 꼽히는 溪居를 형성하여 취락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¹⁵⁾

2. 16-17세기에 설촌된 마을

1) 묘골마을

① 입향경위

묘골마을은 死六臣의 한분인 忠正公 朴彭年의 후손들이 모여살고있는 順天朴氏들의 집성촌으로 경북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다.

朴彭年(1417-1456)은 1455년 忠淸道 觀察使로 나가 이듬해 刑曹判書로 있으면서 端宗復位를 도모하다가 증도에 탄로되어 체포된 후 그 일가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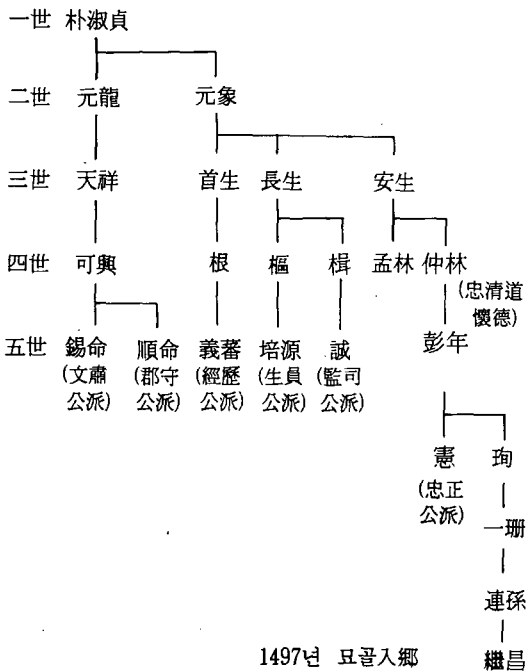


표4 順天朴氏 世系圖

15) 金麟九, 川上九曲說話, 安東誌, 故郷文化社, 1987.

모두 피화를 당하였으나 그의 손자가 朴婢란 이름으로 숨어지내다가 성종3년(1472) 17세 때 아버지 珣의 동서가 되는 좌의정 李克均의 자수권유에 따라 자수하고 조정의 특명으로 사면되었다. 이때부터 이름도 一珊으로 고치고 1497년 하빈 묘골 龍山 밑에 터를 잡아 사당과 정자를 지어 이때부터 500여년 동안 살아온 忠正公 血孫들의 古基가 되었다. 一珊公은 1479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곳에 99칸 宗宅을 짓고 順天朴氏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朝鮮時代의 전형적인 斑村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¹⁶⁾

② 마을의 배치구조

묘골마을은 東으로는 八公山이 西쪽으로는 洛東江이 흐르며 伽耶山, 金鰲山이 솟아있고 마을 뒤쪽으로는 龍山이라 부르는 높지않은 산줄기가 길게 뻗어있는데 龍의 머리와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골짜기에 의해 떨어져 서로마주보는 形態인 回龍顯尾形이다.

八公山에서 뻗은 맥이 漆谷의 架山, 仁同의 遊鶴山 등을 거쳐 龍山을 이루고 文樂山, 織女峯, 熊山 등으로 이어져 내려와 4면에서 모두 산줄기로 둘러싸여져 있어 외부로부터 강하게 隱蔽된 明堂을 이룬다.

묘골마을은 이 마을의 전, 후관계로 보아 후면 界面부에 이 마을의 종가가 위치하고 전면으로 후손들의 주거지가 마을의 입구가 되는 下位部分에 民村이 배치되어 계층에 따른 방향별 위계성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마을지형의 위계상 最上位의 중심은 宗家の 正寢이 되는데 몇 개의 층을 중심의 軸을 따라 연결하면 里門-홍살문-宗宅-節義門의 순서가 되며 진입로상의 里門은 마을의 경계와 입구를 표시하고 근처에는 三忠閣을 세워 外래객에 대한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즉 마을의 중심인 龍山으로 부터 宗家-마을마당으로 이어지는 軸은 宗教的, 精神的 象徴軸으로서 龍山과 熊山을 잇는 風水地理局面의 自然軸과 일치하므로서 마을의 象徴軸인 동시에 配置軸이

16) 死六臣과 묘골의 遺蹟, 順天朴氏忠正公派宗親會, 1988.

된다.¹⁷⁾

묘골마을은 16세기 避世次 中央權力部와 멀리 떨어진 골짜기에 터를 잡아 設村을 한 관계로 이 마을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로는 전혀 노출되지 않은 깊은 隱遁地로 최적의 장소이며 당시의 宗法思想이 마을의 입지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마을이다.

2) 옷골마을

① 입향경위

옷골마을은 大邱市 東區 屯山洞에 위치한 慶州 崔氏들의 同族마을이다.

慶州崔氏들의 이곳 入鄉祖는 壬亂 당시 대구의 병장으로 倭敵을 격파하고 많은 전공을 세운 臺巖 최동집으로 1625년에 이곳으로 입향하였다.

옷골에 들어온 臺巖公이 晩年에 현재 達城郡 公山面 龍水洞인 당시 夫仁洞에 隱居하기도 했으나 그 子孫들은 계속 옷골에 定着 繁盛하여 先住한 文化柳氏들을 압도 慶州崔氏 單一集姓村을 형성하였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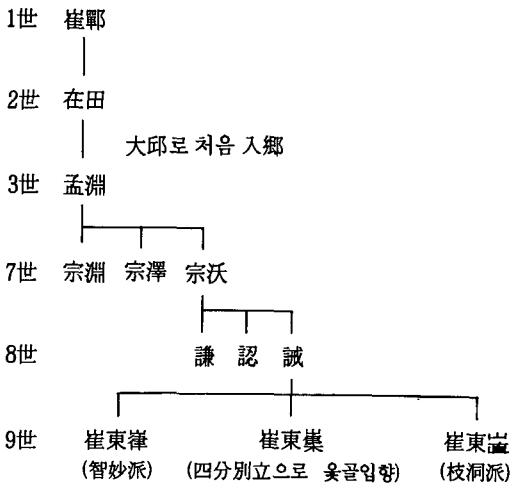


표5 慶州崔氏 世系圖

17) 鄭時春, 朝鮮時代 班家중심 마을의 空間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 市立大 博士學位論文, 1990.

18) 漆溪集, 慶州崔氏 門中, 1984.

처음 崔氏들이 이 마을 入鄉以後 얼마동안은 손이 귀하여 宗家와 百弗巖 先生을 봉향한 東川書院, 그리고 몇채의 가람집만이 있었다. 당시에는 살림을 나면 옷골마을 자체의 국이 좁기 때문에 마을밖으로 나가 살았으며 百弗巖先生의 4代孫이 되는 命德, 命愚 兄弟 때에 와서 10兄弟를 두어 비로소 宗家 前面에 집을 지어 같은 마을에 分派하였다.

② 마을의 배치구조

옷골마을의 地形的 條件은 北으로는 八公山을 來龍으로 옥고개가 병풍처럼 둘러싸여있고 東으로는 儉德山, 儉德藥泉, 東溪瀑布 등이 있는 언덕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어 이 마을을 감싸고 있고 서쪽으로는 土谷嶺이 남쪽으로는 멀리 琴湖江이 흐르는 마을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盆地地形 마을이다.

마을의 양옆으로는 東溪와 西溪가 흘러 마을입구 왼쪽에서 合流하여 내려가며 마을 뒤의 臺巖에서 흘러내린 산줄기는 양쪽개울을 지형적인 경계로 하여 集落을 이루고 있는 抱環形이다.

특히 이 마을을 감싸고 둘러져 있는 뒷산의 頂上에 있는 臺巖은 崔氏들의 이 마을 入鄉前에는 生龜巖이라 불렀으나 入鄉以後에는 入鄉祖의 號를 따서 臺巖이라 바꾸고 이 마을을 지키는 正心적 지주로 삼았다.

옷골마을은 마을 뒤의 臺巖을 중심으로 마을입구에 있는 고목이 마을의 守護機能과 함께 領域性을 상징하고 있으며 양옆의 산들에 의해 둘러싸여 耕作地인 外明堂을 포함한 3次 領域을 형성하고 있다. 東溪와 西溪가 合流한 곳을 지나 입구 古木地點에서 마을의 住居地가 형성되는 2次 領域이지만 旌閭閣이 있는곳에서 비로소 마을을 인식할수있는데 旌閭閣 밑에있는 몇채의 집은 옛날에는 가람집이 위치한 곳으로 근간 거의 개축한 상태이다.

옷골마을에서 主山과 穴에 가까운 곳에 宗家나 큰집 또는 入鄉時期가 빠른 집이나 支配身分層의 집이 위치하고 水口와 案山에 가까운 곳일수록 傍系家나 작은 집, 最近에 入鄉한 집, 被支配 身分層의 집이 位置한 前,後의 垂直的인 位階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옷골마을은 17세기 초 壬辰倭亂이 끝난 직후

避難地를 택해 立地한 마을로 당시 入鄉祖의 禮學思想이나 道家의 隱遁思想에 관련하여 깊은 골짜기를 정해 設村하면서 주위의 自然的 環境에 의한 地理的인 限界, 開基當時 地官의 勸誘와 韓國 古來의 風水地理說에 입각한 象徴의 意味가 내포된 配置構造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외부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은둔지의 성격이 강한 마을로 후손들이 그들의 分派地를 정할 때에도 확연한 位階性을 읽을 수 있는 宗法思想에 기인된 整形性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마을이다.¹⁹⁾

3) 愚山마을

① 입향경위

愚山마을은 朝鮮時代의 儒學者 愚伏 鄭經世(1563-1632)의 후손인 晉陽鄭氏의 동족마을로 경북 상주군에 위치하고 있다. 1563년 尙州郡 靑里面 栗里에서 태어난 愚伏은 西厓 柳成龍의 수제자로 退溪學 再傳의 대표적 학자였다.

愚伏 鄭經世는 당대의 뛰어난 禮學者로 沙溪 金長生과 함께 禮學派를 형성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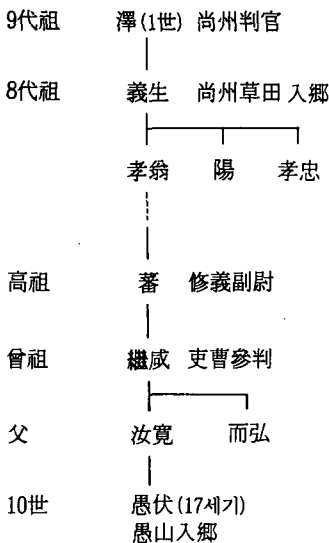


표6 晉陽鄭氏 世系圖

19) 李王基, 朴明德, 同族部落 웃골마을과 百弗古宅에 관한 研究, 大韓 建築學會 論文集, 5권 3호, 1989. 6.

그는 많은 벼슬에 올라 조정대신들의 끊임없는 대립속에 염증을 느끼고 향리로 돌아와 愚伏山中에 묻혀 思索과 讀書로 집필에 열중하는 한편 고을사람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存愛院을 세우고 또 교육을 위하여 道南書院을 창건하여 後學養成에도 힘을 쏟았다.

이곳은 愚伏宗家를 비롯하여 당시의 書室인 對山樓, 愚伏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溪亭, 愚伏의 後學들이 그의 學德을 기려 愚山書院의 강당으로 사용하였던 道存堂 등의 건물을 비롯한 이 일대의 승경을 일컬어 愚山洞天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은 선생이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한 공로로 나라에서 하사한 것이다.²⁰⁾

원래는 南北 10里, 東西5里的 작은 山間峽谷으로 우복은 벼슬을 버리고 산수가 좋은 곳을 찾아 이곳에 우복산장을 낸 것이 선조 38년(1600)으로 이곳 주위에 경승 20개소에 이름을 지어 「七里江山二十景」이란 시를 남기고 있다.

② 마을의 배치구조

上愚山은 俗離山의 지류가 멎어 산을 이루어 이것이 마을 뒷산인 愚伏山(당시 지명은 于北山)이 높이 솟아 이곳 一帶를 안고 돌고있으며 그 앞에 王母峰이 있고 속리산에서 발원한 큰 내는 북으로 흘러 앞산인 國土峰 사이로 빠져나가는 愚山川이 서남에서 흘러 이 마을 앞을 지난다.²¹⁾ 원래 愚

20) 愚伏書院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지에 나타나는데 「상주 서쪽 30리에 있으며 溪山의 景勝에 있다. 鄭經世가 서실을 짓고 학문을 강의했는데 愚伏堂이라고 편액했다. 후세 사람이 서원을 짓고 사당을 세워서 우복을 제사했다, 라는 기록이 있으나 그 이후의 기록이 없어 훼손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마을에 전하는 말로 書院을 지을때 재목은 하북과의 경계인 은척면 산중 다락골에서 베어왔으며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어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世傳된다.

또 慶尙道 邑誌에 보면 對山樓에 대해 「在州 西愚伏山 文莊公鄭經世 所建其孫掌令宗魯 又建講堂名之日修契所母與 多士講論于此, 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의 6대손인 立齊 鄭宗魯가 다시 지어 이름을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21) 息山 李萬數는 尙州贊辭에서 「山高松離岳 水潤洛東江 山水擅名區 先賢輩出地」라하여 이곳이 山水가 뛰

伏의 선조들은 功城面 上草田에 살다가 靑里面 上栗里로 옮겼고 愚伏이 이곳에서 다시 愚山으로 이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복의 宗孫이 살고있는 上愚山은 조그만 한일자 골짜기에 역수로 입수하는 개천을 앞으로 끼고 나지막한 뒷 둔덕을 진산으로 삼아 남향으로 배치되며 앞산인 시루봉을 조산으로하여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宗家가 있는 上愚山은 局이 좁아서 더 이상의 인구수용이 불가하였으며 비록 後孫이라 할지라도 宗孫을 제외하고는 나가 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上愚山마을은 宗家인 愚伏宗家 한채만이 존재하고 있다.

上愚山에 있는 愚伏宗家는 옆으로 펼쳐진 골짜기에 우산천을 앞으로 끼고 나지막한 뒷 둔덕을 진산으로 앞산인 시루봉(天馬山)을 조산으로 하여 자리잡고있다. 전체적인 좌향은 酉坐卯向을 하고 있으며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가 ㄷ자 형태를 하고 있고 그의 愚伏先生을 비롯한 5대의 神位를 모신 家廟와 대문채를 합해 한 울타리에 배치되어 있으며 立齋선생을 모신 사당이 집밖 남쪽에 위치하고있다. 전체적인 대지의 형태는 山地에 위치한 관계로 사랑마당과 안마당을 제외한 중간의 출입통로는 경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의 형태는 전후로 층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愚山마을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해 속세와는 거리를 두고 山地에 위치한 隱遁地的인 성격이 강한 마을이며 愚伏宗家는 그의 禮學思想에의 영향으로 뼈뚜름이 없는 正對稱의 배치구조를 보이고 있다.

3. 18세기 이후 설촌된 마을

1) 파회마을

① 입향경위

파회마을은 전술한 묘골마을에서 順天朴氏들의 분파에 따라 묘골마을로부터 작은 산 하나를 '기

어난곳이며 많은 儒學者가 배출된 곳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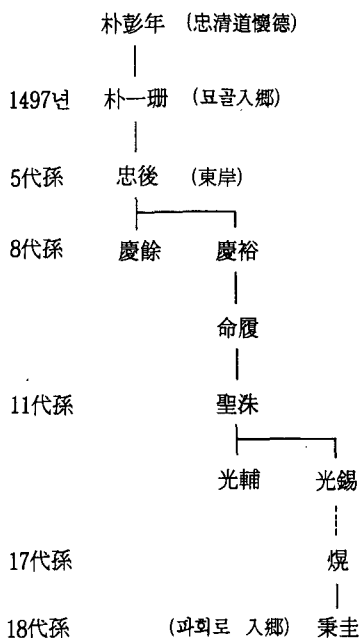


표7 忠正公派의 分派關係

에 두고있는 입지한 마을이다.

묘골마을의 큰집 계열인 東岸은 忠正公의 8代孫이 되는 慶餘, 慶裕 兄弟에서 다시 分派되어 작은집인 慶裕의 後孫들은 이 마을 가운데로 터를 잡으면서 中岸으로 불리워 지게 되었다.

中岸은 당시 嶺南學派로 유학의 연구와 학습을 통하여 우수한 문장과 청렴한 기질로 세습하다가 12代孫인 漢城府 右尹을 지낸 老圃公 光錫代에 와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세력면에서 큰집 계열인 東岸보다 우세하게 되어 큰집에 대한 崇祖思想을 감안 파회마을로 분파하게된다.

② 마을배치구조

묘골마을에서 分家한 파회마을은 묘골마을과 남쪽으로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으며 地域道路에서 직접 연결된다. 묘골마을에서 分派地인 파회마을은 抱環形으로 周圍 3面の 山勢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주변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귀길을 따라 마을입구에서 큰물에 合流하게 된다.

파회마을의 배치는 後面 界面部에 이 마을의 입향조인 朴秉圭氏집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그 後孫들의 주거지를 그리고 전면 왼쪽으로 民村이 들어서고 있어 방향에 따른 位階上的 立地形態를 볼

수 있다.

이곳은 局이 좁고 마을내부의 길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은 관계로 마을중심을 향하는 어귀길이 발달되어 안길과 골목길의 機能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을의 認識性을 높여주며 外部來訪客에 대한 準備空間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있다.

묘골마을에서의 宗族의 分派는 立地上의 분포와 동일하게 下向性을 띄며 확산하다가 후손들중에 출중한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을에서 宗家에 대한 崇祖思想을 감안 옆의 마을에 住居地를 정해 분과해 나감으로서 崇祖의 概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班村마을로서 가족제도에 기인하여 특정한 권위에 대해 쉽사리 복종하고 적극적인 自我를 주장함이 없이 타협적, 절충적이 되고 寬容, 宥和하려는 정신의 일면을 읽을수 있다.

하지만 16세기에 設村한 묘골마을이 避世를 위해 외부에 대해서는 隱蔽的인 성격을 가지며 山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하여 18세기에 設村한 파회마을은 평야에 위치하여 耕作地와 밀착된 배치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 下愚山마을

① 입향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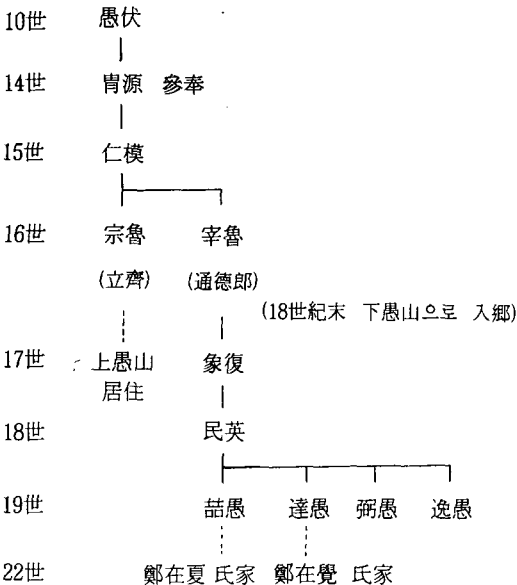


표8 下愚山 晉陽鄭氏 世系圖

下愚山 마을은 晉陽鄭氏의 동족마을인 上愚山의 한정된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上愚山으로부터 이곳으로 분과하여 입지한 마을이다.

② 마을배치구조

이곳의 地勢는 蔚山국교 뒷산인 시루봉이 上愚山쪽에서 산줄기를 뺏어서 국사당쪽에 이르고 다른 한줄기는 마을동쪽을 휘감아 동북쪽을 左靑龍으로 입수한다. 마을의 祖山은 은척의 남산으로 병풍처럼 펼쳐지며 마을앞 들판엔 목형 안산인 봉니봉이 있다. 마을 좌우를 냇물이 가로 지르고 있는데 左靑龍인 개천은 골이 깊어 마을 앞을 벗어난 안산과의 중간쯤을 지나며 右白虎인 개울은 金氏네와 鄭氏네 마을 가운데를 가로 지른다.

전체적인 마을의 배치는 크게 두 곳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鄭氏네 마을인 새터이고 다른 하나는 金氏네가 사는 지서마을인데 이들은 마을 가운데의 개울을 境界로 확연히 구분된다. 前者는 뒷진산을 등지고서 대체로 西向하고 있어서 마을의 主脈을 타지 않았으며 後者는 左靑龍을 뒤로 해서 南向하고있다. 골이 넓으면 통상 활꼴방식을 선택하지만 이곳은 골이 협소하기 때문에 길이 마을에 바짝 달라붙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는 空間感을 형성해주는 안이 빈약하므로 새터마을 앞에는 길을 따라 도랑을 내고 둔덕을 만들었으며 큰 교목을 심어 마을을 감싸준다.²²⁾

下愚山 마을은 가운데 鄭在夏氏 집을 주위로한 가운데가 먼저 생기고 다음에 동쪽 골짜기 근래에 들어 서쪽과 북쪽 주변동네로 확장되었다.

마을의 번잡한 교통으로부터 깊숙히 안쪽으로 들어온 마을 북판에 자리잡고 있어 외부의 視線으로부터 차단된 아늑한 공간을 형성하고있다. 반면 개울 북쪽의 지서마을은 소릿길에 대해서 중심축이 깊지 못해서 활꼴로 배치되어있다. 따라서 새터는 평지마을의 배열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서마을과는 달라서 아늑하게 진산을 등지고 안산을 향하여 배치하고 있어 지서마을처럼 전체적인 統一感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다양한 활동성을 엿볼 수 있다.

22) 農村住居環境 調査研究 報告書, 明知大學校 附設 韓國建築文化研究所, 1987.

下愚山마을은 愚山마을이 山地에 위치하여 隱遁地的인 성격이 강한 반면 18세기에 이곳에 터를 잡은 下愚山마을은 마을전면으로 넓은 耕作地를 끼고있는 평야형 마을이다.

3) 梅院마을

① 입향경위

梅院마을은 廣州李氏들의 동족마을로 경북 칠곡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廣州李氏들의 중시조는 李擘이다.

원래 廣州李氏들은 李擘이 조선 선조 때 지금 漆谷郡 枝川面 新洞 上枝(일명 옷갓)에 입향하여 살다가 17세기 중반 公의 6代孫인 吏曹判書를 지낸 歸巖 李元禎(1622-1680)과 大司憲을 지낸 朴谷 李元綠代(1629-1688)에 와서 石田(일명 돌밭)과 梅院으로 나누어 入郷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래 梅院마을에는 廣州李氏들이 입향하기 전에는 碧珍李氏들이 살고있었으나 점점 이주해 나가고 지금은 한두 집만 남아있을 뿐이다.

② 마을배치구조

梅院마을은 앞으로는 동정천이라는 조그마한 냇가 흐르고 뒤로는 등머리골이라는 야산을 따라 배치된 마을이다.

이 마을의 전체적인 배치는 배경이 되는 주산의, 완만한 흐름을 따라 전면의 경작지쪽으로 내려와 횡적인 배치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대개의 동족마을의 입지패턴이 산지에 입지한 마을은 지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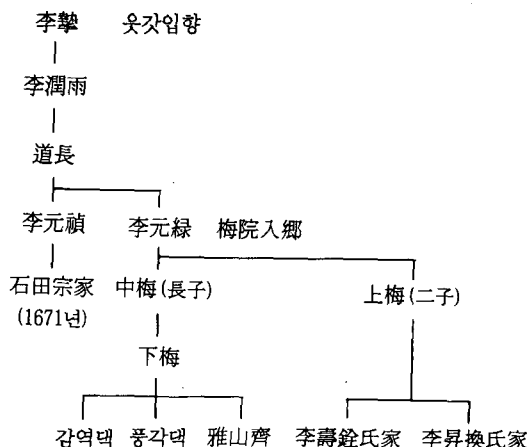


표9 梅院마을 廣州李氏 世系圖

맞추어 界面部인 후면에서 평야쪽인 전면으로 마을을 배치하는 종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매원마을은 옆으로 뻗은 뒤산의 흐름에 맞추어 전면의 평야와 평행된 횡적인 배치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경작지를 지나 일반민가와 동족들의 확산으로 인한 분파지를 그리고 後面 界面部에 종가를 위치시키는 종적인 배치보다는 공간의 진입에 따라 느낄 수 있는 성스러움과 신성함 및 崇祖와 保宗의 상징인 종가에 대한 경의심은 반감되고 있다.

宗家가 위치하고 있는 中梅를 중심으로 東側으로는 上梅가 그리고 西側으로는 下梅가 자리잡고 있어 中梅를 중심으로한 中心部와 그외의 周邊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음 이곳에 入郷한 朴谷은 자식들을 中梅, 上梅로 나누어 分家시켰고 후에 中梅에서 다시 下梅(西梅)로 분파되는데 이 마을 명칭은 지금도 그대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사회적 활동의 편의상 거주집단에 지명을 붙여 수평적으로 空間을 범주화하고 있다.

梅院마을에서 볼 수 있는 확산과정은 처음 中梅에 入郷祖가 입향하여 下梅로 분파하는 과정은 立地關係나 주택의 규모 등에서 宗法上的의 엄연한 秩序를 읽을수 있으나 上梅로 分派하는 과정은 18세기 이후 朝鮮後期の 社會相에 기초하여 종가규모를 훨씬 압도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下梅로 分家되는 계통은 완전 口字집에서 ㄷ字와 一 字집, ㄴ字집과 一 字집의 복합으로 체가 분화되어 中庭의 폐쇄성은 감소하고 각채의 분화가 생기는 유형으로 宗家의 직계후손이라는 신분으로 집의 규모도 宗家보다 축소건립하고 있지만 上梅로 분파되는 유형은 上梅가 朝鮮後기로 내려올수록 농업생산에 의해 경제적인 富를 바탕으로 宗家와 같은 口字집에다 규모면에서는 宗家를 상회하는 형태로 집을 조영하고 있다.

이는 朝鮮後기로 내려올수록 친족으로서의 신분보다는 경제적인 富를 기초로한 경제적 우위현상으로 변하여 입지형태에서나 주거의 규모로 봐서도 宗家의 규모를 압도하는 物質優位의 思想을 반영하고 있다.

IV. 同族 마을의 設村時期에서 나타난 공간구성

1. 15세기에 設村된 마을

조선이 개국하면서 지방의 中小地主層에서 성장한 新興士族들은 15세기에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자 농경기술의 개선과 勸農策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특히 14, 15세기가 되면 농업기술상의 일대발전이 이루어 지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인 休閑法의 극복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시기에 새로운 사회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이른바 新興士族의 존재와 그 학문적 입장에서 그들이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수용한 性理學과 새로운 농업기술로서의 江南農法이 실상은 같은 것이다.²³⁾

따라서 당시에 設村한 眞寶李氏나 義城金氏들의 동족마을은 원래 義城과 眞寶의 土姓吏族에서 土族으로 身分上昇을 하면서 원 마을과의 位相關係를 감안 안동지방의 土溪와 내암마을로 터를 골라 設村하였으며 그후 後孫들의 분파지가 이 일대를 주위로 하여 확산되고 있다.

이곳은 그들이 性理學의 실천자로서 형이상학적인 도덕의 소유자로서 산의 모양이나 기개 등을 보고 名山이나 그 지역의 宗山으로 여겼던 유역을 학문을 하기위한 隱居의 장소로 혹은 자연과의 화합에 의한 풍류생활의 장소로 혹은 仙人이나 道人이 되기를 희망하는 理想郷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나 농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을 쉽게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選好하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었다.²⁴⁾

특히 이 두마을의 立地와 分派地에서 보여주고 있는 조선조 중기 性理學者들의 精舍, 書堂에서의 학구적인 생활은 朱子が 말년에 보여준 것에 따라 행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퇴계가 陶山에서의 卜居와 講學을 위한 精舍의

經營은 士禍로 어지러운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나아가서 벼슬하면서 경륜을 펴는데 기대를 가지지 않고 학문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서 온 것이지만 道學을 하는 방법 즉 자연과 화합을 체험하면서 심성을 탐구하는 朱子の 雲谷에서의 武夷精舍 생활을 모범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²⁵⁾

또 義城金氏들이 分派한 立地에 나타난 川上九曲도 朱子の 武夷九曲이나 宋子の 華陽九曲과 같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住居地를 九曲으로 명명하여 그 景勝마다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으며 자신들과 자연과의 일체를 염원하는 神仙思想의 발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을 朱子와 宋子를 잇는 正統儒學의 脈으로 보아 朱子 - 武夷九曲, 宋子 - 華陽九曲으로 九曲의 脈을 같이 하고 있으며 각 曲마다 형태적인 특성과 溪流의 動的이고 靜的인 景의 요소가 존재하는 연속적인 場의 결합으로 보아 마을을 구성하고 있으며 儒敎主義의 自然觀에 입각한 空間的 實踐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그들의 후손들이 거주하고있는 동족마을은 여러 시대를 두고 성립된 관계로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分派地에서 나타나고 있는 造營思想은 自然과의 和음을 체험하면서 심성을 탐구하는 朱子の 雲谷에서의 武夷精舍 생활을 모범으로 삼아 溪居를 끼고있는 깊은 계곡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溪居는 平常時 經濟的基盤이 되는 土地를 제공해주고 避兵, 避世할 수 있는 隱遁地로 이곳을 선택하였으며 溪居聚落은 촌락 가까운 곳에 세상에서 벗어난듯한 골짜기의 평온한 아름다움과 시원스러운 韻致를 즐길 수 있는 景勝地로서 士大夫 계층에게 인식되어 深山幽谷에 溪流가 흐르는곳을 現實的인 理想郷으로 選擇하였음을 알 수 있다.

25) 그들은 武夷九曲을 감상적, 장식적 대상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주자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退溪와 그를 추종하는 학자들에게는 武夷權歌의 해석에서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栗谷과 그를 따르는 학파에서는 우리 가사체와 닮은 高山九曲歌의 제작과 함께 우리 산천을 九曲圖라는 형식의 實景畵로 수용 발전시키고 있다.

23) 李泰鎮, 韓國社會史研究, 知識産業社, 1989.

24) 崔杞秀,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 景觀構成의 해석에 관한 研究, 漢陽大 博士學位 論文,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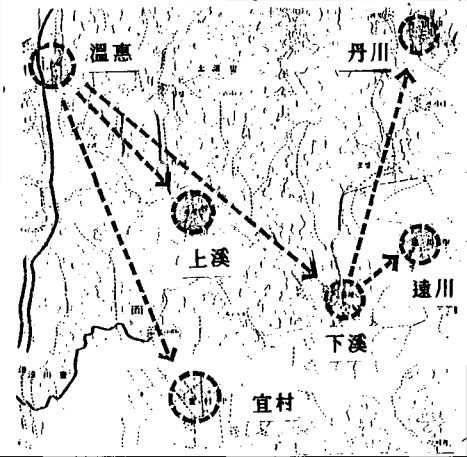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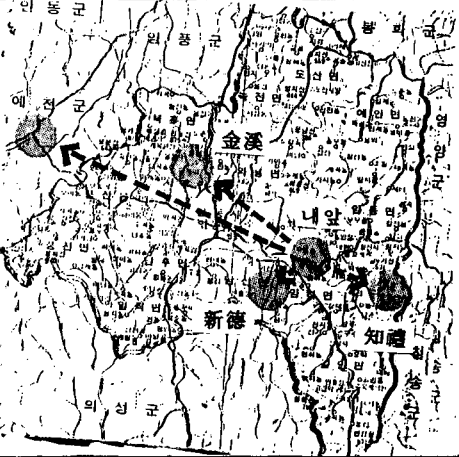
마을이름	土溪마을	川前마을
世居地 移動		
주된 姓氏	眞寶李氏	義城金氏
入鄉時期	15세기	15세기 말
入鄉祖	李繼陽	金萬謹
世居地移動理由	身分上昇으로 인한 世居地 移動	
入鄉距離	遠距離 移動	
入鄉特性	儒敎主義 自然觀에 입각한 空間的 實踐(溪居)	

그림1 15세기 設村한 마을의 立地特性

2. 16세기-17세기에 設村된 마을

16세기가 되면 새로운 지배세력인 신흥사대부가 사회를 영도해가면서 朱子學의 實踐倫理를 숭상수범 하던 시대로 朱子家禮대로 冠婚喪祭가 鄉村社會에 일반화 되며 朝鮮社會는 宗法의 강력한 영향하에 놓이게 된다.

당시 南宋의 宗法이 조선사회에 통용되었을 때는 宗家, 支家 또는 本家, 分家の 명칭으로 사용되어 宗家에 대한 崇祖 및 保宗意識에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16세기 이후 設村한 마을은 조선의 건국 이후 정치적인 權力競爭에 의한 朋黨政治가 행해짐으로 인해 동족집단의 강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壬辰倭亂이나 丙子胡亂이후 국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인해 이때 設村된 묘골마을이나 웃골마을, 愚山마을의 경우는 避兵, 避世를 위한

은둔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당시의 학풍인 老子의 隱遁思想이나 禮學에 의거 깊은 골짜기를 찾아 그들의 동족마을을 設村하였다.

따라서 깊은 골짜기로 터를 잡은 同族構成員은 그 마을의 입향조의 주택인 宗家를 後面 界面部에 위치하고 宗家 전면으로 그들의 후손들의 주거지를 그리고 마을의 입구가 되는 경작지와 가까운 쪽으로 民村을 입지시키는 宗法이나 계층간의 확연한 位階性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거기서 경제적 기반이 있는 耕作地를 開墾하거나 買受하여 支配者로 군림하게 되며 따라서 그 당시의 모든 경제적인 구조는 宗家를 비롯하여 그 마을의 중심가옥 몇 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同族構成員들의 住居地와 耕作地는 많은 거리를 두게 되고 耕作地쪽으로는 民村을 입지시켜 그들로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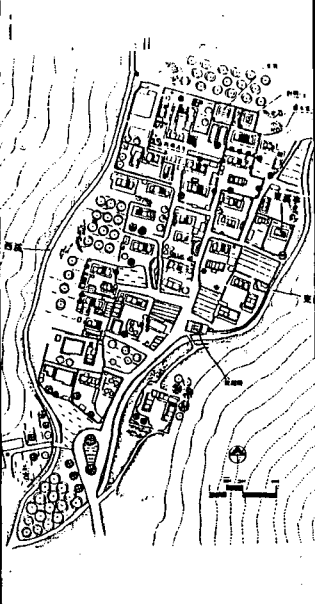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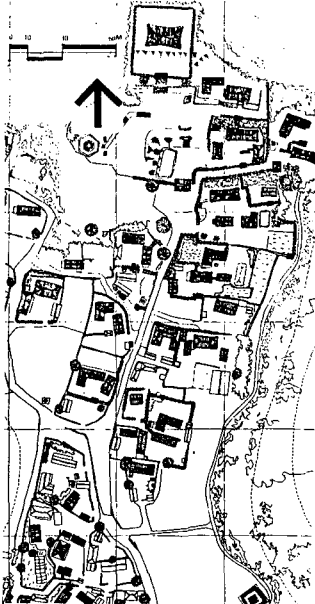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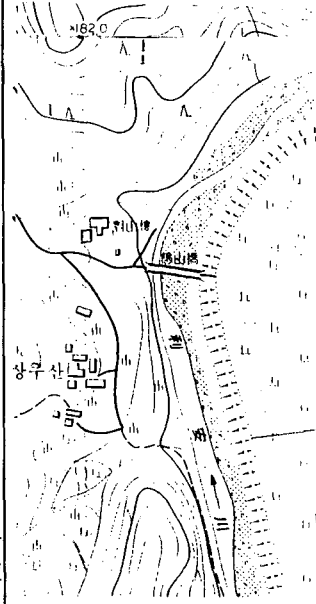
마을이름	옷골마을	묘골마을	愚山마을
立地形態			
周邊狀況	골짜기	골짜기	골짜기
配置特性	上-下 垂直的 位階	上-下 垂直的 位階	獨立家屋
主된 姓氏	慶州崔氏	順天朴氏	晉陽鄭氏
入鄉祖	崔東集	朴一珊	鄭經世
入鄉時期	1625년	16세기 초	1600년
入鄉特性	避兵, 避世에 의한 隱遁地 性格		
마을特性	엄연한 宗法的 秩序		

그림2 16-17세기 設村한 마을의 立地特性

금 소작토록 하여 代理耕作을 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의 경우 耕作地에서 생산된 곡식들은 이 마을로 운반하기 위한 안길이 발달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안길은 耕作地에서 마을의 입구부분을 지나 마을의 終局点인 宗家까지 마을의 중심을 가로질러 연결하고 있는데 이는 穀物을 운반하고 각집으로의 配分動線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3. 18세기 이후 設村된 마을

宗法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18세기 말부터는 집권당의 黨爭으로 인한 노출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며 實學을 바탕으로 한 農民經濟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 전까지 중앙의 권력과 밀착되었던 士大夫層이 지방의 지주층으로 전락하여 관료적 성향이 약화되어가는 동시에 당시 직접 農業에 종사하였던 常民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반으로의 身分上昇이 이루어져 노비의 수가 격감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朝鮮中期 부터 農業經營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田結數에 있어서 水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되고 移秧法이 전국의 水田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진다. 따라서 朝鮮中期 이후 水田의 확대와 移秧法의 보급에 따라 農業經營에 있어 水利施設이나 肥料採取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중기 이후 확대되어진 佃戶經營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肥料의 발원지로서의 山林이나 河川, 湖水들을 이용한 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당시의 신분유지는 농업경영을 통한 경제력에 확보에 의해서 가능하였으며 동족마을은 農業生産에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보았을 때 골짜기에 고립해서는 耕作地를 경영할 수 없었고 耕作地와의 거리로 인한 경제적인 不利함을 감안 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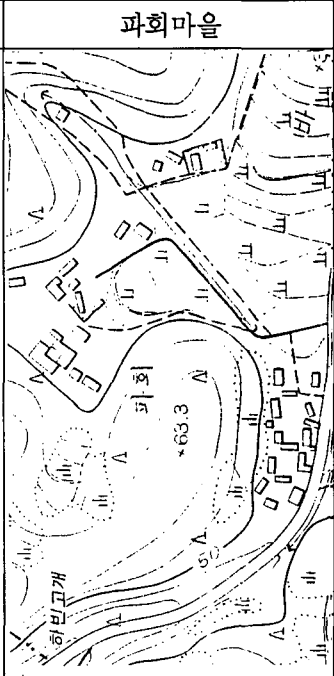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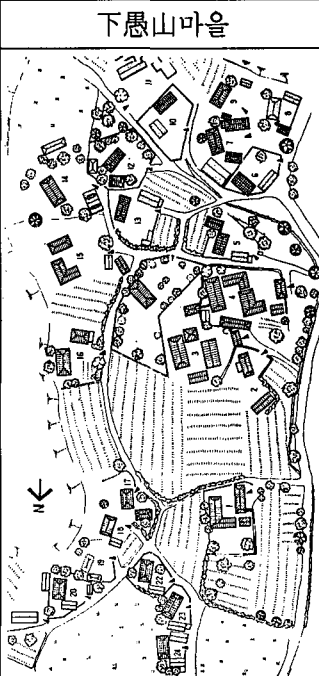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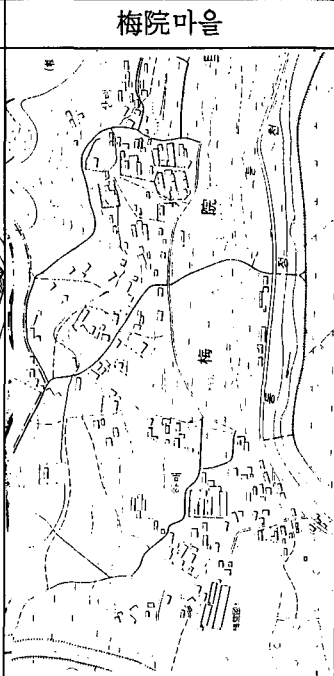
마을이름	과회마을	下愚山마을	梅院마을
立地形態			
周邊狀況	平野地	平野地	平野地
配置特性	垂直的 秩序	水平的 秩序	水平的 秩序
主된 姓氏	順川朴氏	晉陽鄭氏	廣州李氏
入鄉祖	朴光錫	鄭宰魯	李元綠
入鄉時期	1783년	18세기 말	18세기
先着姓氏	最初開基	金海金氏	碧珍李氏
入鄉理由	分家	分家	勢力移動
入鄉特性	廣作經營으로 인한 農耕地 立地. 定着的 性格		
마을特性	宗法秩序의 混亂		

그림3 18세기 이후 設村한 마을의 立地特性

林 및 水利施設을 공유하는 集團과 共同的關係를 취하면서 골짜기보다는 생산수단으로서의 耕作地가 동족마을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과회마을이나 下愚山마을, 梅院마을의 경우와 같이 골짜기 보다는 耕作地와 가까운 平野쪽을 택해 마을을 設村하여 分派祖를 중심으로 마을을 設村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경제적인 관념에 의거 지금까지 절대적인 우위를 가졌던 宗家에 대한 崇祖觀念 및 保宗思想이 物質優位의 思想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까지 同族마을에서 入郷祖의 住宅과 그 支孫들의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規模나 立地上의 位階秩序가 점차 무너지는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과회마을과 매원마을의 경우와 같이 그전까지 禁忌視 되어왔던 慣例인 宗家보다 크게 집을 짓지않던 규칙이 깨어지고 宗家보다 權力이나 經濟的 우위에 있던 後孫들이 규모면에서도 宗家를 훨씬 압도하고 있으며 下愚山 마을의 경우에서처럼 入郷祖의 주택을 前, 後面으로 支孫들의 住居地가 들어서는 등의 立地上 혼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부터 생기게 되는 同族마을은 그전의 避兵, 避世를 이유로 골짜기에 마을을 設村하였을 때 볼 수 있었던 宗法上的 確연한 位階秩序는 農業經濟上的 이유로 동족마을의 立地가 耕作地와 가까운 平地로 나오게 되면서 그때까지의 宗法上的 秩序에서 經濟的인 富의 축적으로 인한 階層秩序로 변모하게 되며 이러한 思想들이 주거의 立地와 形態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동족마을에서의 宗家の 위치는 조선중기까지는 가문내의 모든 道德的, 經濟的 우위를 차지해 家父長的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朝鮮後기로 오면서 宗家の 지위는 후손들이나 비종손에 의해 경제적으로 추월당하는 현상이 주택의 造營에서도 나타나 이는 당시 身分보다는 經濟力 優位의 사회로 변모했음을 立證해준다.

V.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본 朝鮮時代 동족마

을의 시대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同族마을의 발생 및 발달은 韓國 農村특유의 社會組織, 家族制度, 經濟構造 등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韓國의 마을은 血緣性을 토대로 하는 共同體的 諸關係위에서 性理學의 보급과 발전, 쇠퇴라는 맥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둘째, 15세기에 設村한 토계마을이나 내앞마을은 溪居를 따라 마을을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溪居가 平常時 經濟的基盤이 되는 土地를 제공해주고 세상에서 벗어난듯한 골짜기의 평온한 아름다움과 시원스러운 韻致를 즐길수 있는 景勝地로서 士大夫階層에게 인식되어 深山幽谷에 溪流가 흐르는 곳을 現實的인 理想郷으로 選擇하였다.

이는 자신을 朱子와 宋子를 잇는 正統儒學의 脈으로 보아 朱子-武夷九曲, 宋子-華陽九曲으로 九曲의 脈을 같이 하고 있으며 각 曲마다 형태적인 특성과 溪流의 動的이고 靜的인 景의 요소가 존재하는 연속적인 場의 결합으로 보아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16세기 이후 設村한 마을의 특징은 朝鮮의 建國이후 정치적인 權力競爭에 의한 朋黨政治가 행해짐으로 인해 동족집단의 강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壬辰倭亂 이후 국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인해 避兵, 避世를 위한 은둔지의 성격이 강하며 당시의 學風인 老子的 隱遁思想이나 禮學에 의거 깊은 골짜기를 찾아 그들의 동족마을을 設村하였다.

따라서 깊은 골짜기로 터를 잡은 同族構成員은 그 마을의 입향조의 주택인 宗家를 後面 界面部에 위치하고 宗家 前面으로 그들의 후손들의 주거지를 그리고 마을의 입구가 되는 경작지와 가까운 쪽으로 民村을 입지시키는 宗法이나 階層間的 確연한 位階性이 나타나고 있다.

네째, 宗法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18세기 말부터는 집권당의 黨爭으로 인한 노출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며 實學을 바탕으로한 農民經濟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 당시의 신분유지는 농업경영을 통한 경제력에 확보에 의해서 가능하였으며 동족마을은 農業生産에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보았을 때 골

짜기에 고립해서는 耕作地를 경영할 수 없었고 耕作地와의 거리로 인한 경제적인 不利함을 감안 山林 및 水利施設을 공유하는 集團과 共同的關係를 취하면서 골짜기보다는 耕作地와 가까운 곳으로 터를 잡아 設村하게 된다.

또 이러한 경제적인 관념에 의거 지금까지 절대적인 우위를 가졌던 宗家에 대한 崇祖觀念이 무

너지기 시작하여 物質優位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전까지 宗家보다 크게 집을 짓지않던 규칙이 깨어지고 宗家보다 權力이나 經濟的 優위에 있던 後孫들이 규모면에서도 宗家를 훨씬 압도하는 혼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 Study on the Condition of Location According to the Formed Time in the Clan Village

Park, Myung Duk
Park, Eon Kon

ABSTRACT

This study is the conditions of location according to formed the times in the clan vill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15th centu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established residential place where mountain stream flowed surrounded by the mountain and deep in the mountains with superior quality land.

That's because Sa-dae-bu put equal importance on beautiful scenery and practical benefit for living.

Stream House provided economical foundation for Sa-dae-bu to be able to keep confucial manners by putting limit their economic status to small medium sized land owner. Topographical condition such as valley or hollow separated from the exterior maintained unification of consanguineous village in self sufficient farming society and held on to independent territory against external to be able to stay away from turbulent days so that they formed residential area of Sa-dae-bu clan. And the valley where flowed clean water was considered as the connection of continuous place where distinctiveness of form in each curve and and factor of calm and dynamic scenery of the clean stream. Scholars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located in the utopia as place for confucious retirement to study, a place for refinement by combination with the nature or as a way of spacial practice based on Confucious view of nature.

2. in the 16th—17th century, Most of existing consanguineous villages adopt deep in the mountains for refuge. at that place, upward rank was established by settlement of the ancestor who entered in the village first, the principal was placed in the center of the village and since descendants became numerous, it was serialized as the space of descendants. So, it was arranged in the order of social rank.

Most of the villages showed development step by step started from precaution by apperance of the mountain to the lower part. It's because the topography of valley around the village worked as the natural hedge against external force and genealogy of the clan, regularity of social status, order of entrance into the village were reflected into residencial destribution. Also, order of the rank coincided with the one of aspects on geomancy.

Genealogical rank within the village represented spacial rank. Houses of descendants and branch families were placed lower than the principal which showed worship to the principal.

3. In 18th century after, as the village was settled nearby cultivated land considering economical loss caused by long distance between residencial area and cultivated land, direction of sect followed by development of village expanded from the front part of the village to the rear part. The principal that was popped out to the front presented frontage over exterior.

Therefore, residencial area of branch families expanded to the rear starting from the principal. This represented a slice of social structure at that time. after 18th century, spirit was percieved superior over material. After then, development of cultivation and expantion of land created difference of economic strength within one village. In order to maintain and show off the status of Yang-ban, economic power of indigenous land owner became fundamental, so, sense to worship and to keep the principal became weak eventually. Taking advantage of that situation, residencial area of branch family expanded to the rear part of the principal which showed dual disposition conflicted with each other.

However, these clan rules were destroyed and new rules were created after 18th century because of the situation and consciousness at that time.